

1950.6.25

~

1953.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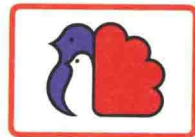
6·25 전쟁 **1129**일

이중근(李重根) 편저



우정문고

6·25전쟁 1129일



常州大学图书馆
藏书章

1950. 6. 25~1953. 7. 27

6·25전쟁 1129일

제1판 제1쇄 2013년 8월 16일

개정판 제1쇄 2014년 8월 30일

편저자 | 이중근

주 간 | 김명호

발행인 | 이중근

펴낸곳 | 우정문고

등록 | 2013년 7월 29일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전화 | 02-3774-5500 팩스 | 02-3789-5333

<http://www.booyoung.co.kr>

편집 | 박희진

교열 | 백은숙

본문디자인 | 한향림, 노승우

표지디자인 | 닝청춘, 후창웨

출력 및 인쇄제본 | 네오프린텍(주)

© 이중근, 2013

값 140,000원

ISBN 979-11-950890-6-2 03300

* 이 책의 내용 일부나 전부를 무단으로 전재·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중근 (李重根)

국민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주택건설 전문인 부영(富榮)그룹의 창립자. 아호는 우정(宇庭). “교육재화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믿음 아래 1991년 순천 부영초등학교 신축 기증을 시작으로 전국 140여 곳의 대학과 초·중·고에 기숙사·도서관·체육관 등 교육·복지 시설을 기증했다. 2003년부터는 아·태 및 아프리카 등으로 영역을 확대, 16개국에 학교(600여 개교), 피아노(6만 대), 칠판(60만 개) 등을 기부하고 이들 국가에 한국식 졸업식과 함께 애국가를 비롯해 졸업식 노래, 고향의 봄, 아리랑 등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를 전파 중이다.

교육에 대한 애착은 사회활동으로 이어져 건국대 이사장(1999~2001)을 역임했고 학교법인 우정학원 이사장,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운영재단이사 등을 맡고 있다. 2004년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4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다.

공군 복무(1961~67)를 소중히 여겨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회장과 대한노인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NUAC) 서울부의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많은 유공훈장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임대주택정책론』 『한국주거문화사』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6·25전쟁에 대한 전후세대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여 책을 쓰게 되었다는 저자는 이 책이 과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소통과 조율을 중시하고 있다.

Lee, Joong Keun

Birth at the 1941, Soon Cheon, South Cholla Province, Korea.

Service at the Air Force(1961~67), MA, PhD,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Education foundation, chairman of board, Keon Kuk University(former).

Chairman, Research Institute of Housing Industry(former).

Chairman, Korean Housing Association(former).

Education foundation, chairman of board at the Institute of Woo Jeong.

Chairman at the Woo Jeong foundation of education and culture.

President Boo Young Group.

Chairman of Veteran's Association of Internet, ROKAF.

Vice president, the Korea Senior Citizens Association.

Vice president in Seoul,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Paper and book

The study about vitalization of house redevelopment business(MA thesis, graduate school of policy, Korea University, 1999)

The study about effect of permanent Rental Housing Policy(Ph D thesis, graduate school of policy, Korea University, 2003)

The study about factor of determination of housing satisfaction to the rental house housing(Journal of Korea housing Academy, 2003)

House is not purpose of possession but residence tool(Ko Woo Kyung Je, 2003)

The policy of rental house(Na Nam Chool Pan, 2005)

The history of housing culture in Korea(Na Nam Chool Pan, 2013)

The policy of rental house(revised edition, Na Nam Chool Pan, 2013)

머리말 · 004

Preliminary · 007

알타에서 6·25까지 · 010

From Yalta to the Korean War · 023

1950

庚寅年 檀紀 4283

6월	039
7월	057
8월	091
9월	128
10월	159
11월	193
12월	227

1951

辛卯年 檀紀 4284

1월	259
2월	289
3월	316
4월	345
5월	373
6월	399
7월	427
8월	459
9월	484
10월	505
11월	528
12월	551

일러두기 · 032

1952

壬辰年 檀紀 4285

1월	573
2월	594
3월	616
4월	641
5월	662
6월	687
7월	708
8월	743
9월	769
10월	788
11월	812
12월	831

굳어져 가는 휴전선 · 982

Becoming harden armistice line · 987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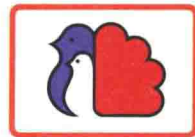
癸巳年 檀紀 4286

1월	855
2월	871
3월	889
4월	908
5월	926
6월	940
7월	966

부록

6·25전쟁 상황지도 · 994
휴전회담 장소 및 거제도 포로수용소 요도 · 996
참전 항공기의 성능 및 제원 비교 · 998
6·25전쟁 관련 통계지표 · 1000
정전협정 조인 이후 전후처리 일지 · 1008
군사용어 약어 · 1010
함정 명칭 · 1012
참고문헌 · 1013
찾아보기 · 1031

6·25전쟁 1129일





©최정동

이중근(李重根)

국민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주택건설 전문인 부영(富榮)그룹의 창립자. 아호는 우정(宇庭). “교육재화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믿음 아래 1991년 순천 부영초등학교 신축 기증을 시작으로 전국 140여 곳의 대학과 초·중·고에 기숙사·도서관·체육관 등 교육·복지 시설을 기증했다. 2003년부터는 아·태 및 아프리카 등으로 영역을 확대, 16개국에 학교(600여 개교), 피아노(6만 대), 첼판(60만 개) 등을 기부하고 이들 국가에 한국식 졸업식과 함께 애국가를 비롯해 졸업식 노래, 고향의 봄, 아리랑 등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를 전파 중이다.

교육에 대한 애착은 사회활동으로 이어져 건국대 이사장(1999~2001)을 역임했고 학교법인 우정학원 이사장,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운영재단이사 등을 맡고 있다. 2004년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4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다.

공군 복무(1961~67)를 소중히 여겨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회장과 대한노인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NUAC) 서울 부의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많은 유공훈장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임대주택정책론』 『한국주거문화사』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6·25전쟁에 대한 전후세대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여 책을 쓰게 되었다는 저자는 이 책이 과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소통과 조율을 중시하고 있다.

1950. 6. 25-1953. 7. 27

6·25전쟁 1129일

이중근(李重根) 편저

1129day's Chronicle around the Korean War

by Lee, Joong Keun

우정문고

머리말

이중근 李重根

지난 세기 중반에 발발한 6·25전쟁은 핵무기만 제한되었을 뿐 제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없었다. 인류 역사상, 한 공간에서 전 국민과 25개국의 200만에 가까운 군인이 치열하게 치른 전쟁도 흔치 않다. 당시 세계의 독립국가 93개국 중에서 60개국이 남한에 병력이나 군수물자를 제공했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공군 및 지상군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는 의료 지원을 했다. 몽고와 동독도 추가 원조를 했다.

현재 한국은 6·25전쟁을 전환점으로 봐도 될 정도로 발전을 이룩했다. 이제는 그 안에 관류하는 역사 정신을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술자의 입장이나 생각이 사실로 각인되는 오류를 막기 위해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를 후세에 알리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6·25전쟁 1129일』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42대의 탱크와 170대의 전투기를 앞세운 북한군이 무방비 상태의 남한에 전면 남침을 개시한 시점부터, 유엔 측과 공산 측이 2년 여에 걸친 회담 끝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을 체결하기까지 1,129일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정성껏 수집하여 기록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난 위대한 역사의 승리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실체를 확인해보는 과정은 이 시대의 요청이다. 피로써 겪은 전쟁을 소중한 문화의 에너지로 삼는 것이 미래를 여는 역사의 지혜다.

문화는 경제(經濟)의 산물(產物)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이 6·25전쟁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전쟁의 실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의 거울이 되기를 바란다.

반려자 나길순 님 동행해줘서 고마워요.

2013년 7월 27일

李連根

Introductory

Lee, Joong Keun

The Korean War, which took place in the middle of 20th century, was equivalent to the 3rd World War, except that nuclear weapons had not been used.

In human history, the Korean War stands out as an unusual civil war. Nearly 2 million soldiers representing countries from all over the world fought for the freedom of South Korea. At the time of the war, 60 of the 93 independent countries in the world provided South Korea with troops and war supplies. On the other hand,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t China provided North Korea with air force and ground troop support while Bulgaria, Czechoslovakia, Hungary, Poland, and Romania provided medical assistance. Mongolia and East Germany provided additional aid. The Korean War was a turning point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t contributed to the current economic achievements of South Korea. All of these unique factors make it necessary to look at the Korean War from a broad objective perspective. This is my duty, to hand down the facts about the Korean War 'as it was', while avoiding the prejudices that might warp narration of the events that unfolded.

"1129 Days of the Korean War" is the first project published by "Woojeongmoongo". This publication collected and recorded what happened on the Korean peninsula relative to international society starting with the North Korea forces launch of a full scale invasion of a defenseless South Korea with about 242 tanks and 170 combat planes at 4 a.m. June 25, 1950, going all the way through the armistice agreement between the UN and North Korea at 10 a.m. July 27, 1953.

South Korea today is a shining example of a great historical triumph, recovering from the ruins of war and a hopeless condition to become a modern advanced society.

It is this era's demand to reveal the reality of an unfinished war and reflect on that "forgotten war." It would be wise to learn lessons from the bloody war and reflect on them in the light of today's culture, since culture is a reflection of economic achievement. It is the author's wish that this book serves as a mirror of history to reveal the reality of the Korean War so that this document can be used as a primary source for studies on the Korean War.

I dedicate this book to my beloved wife, Na, Kil Soon (羅吉順).

July 27th, 2013

머리말 · 004

Preliminary · 007

알타에서 6·25까지 · 010

From Yalta to the Korean War · 023

1950

庚寅年 檀紀 4283

6월	039
7월	057
8월	091
9월	128
10월	159
11월	193
12월	227

1951

辛卯年 檀紀 4284

1월	259
2월	289
3월	316
4월	345
5월	373
6월	399
7월	427
8월	459
9월	484
10월	505
11월	528
12월	551

일러두기 · 032

1952

壬辰年 檀紀 4285

1월	573
2월	594
3월	616
4월	641
5월	662
6월	687
7월	708
8월	743
9월	769
10월	788
11월	812
12월	831

굳어져 가는 휴전선 · 982

Becoming harden armistice line · 987

1953

癸巳年 檀紀 4286

1월	855
2월	871
3월	889
4월	908
5월	926
6월	940
7월	966

부록

6·25전쟁 상황지도 · 994
휴전회담 장소 및 거제도 포로수용소 요도 · 996
참전 항공기의 성능 및 제원 비교 · 998
6·25전쟁 관련 통계지표 · 1000
정전협정 조인 이후 전후처리 일지 · 1008
군사용어 약어 · 1010
함정 명칭 · 1012
참고문헌 · 1013
찾아보기 · 1031

알타에서 6·25까지

이중근 李重根

6·25전쟁 관계문서들이 공개되기 전까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영·소 3국 수뇌가 38선을 경계로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을 합의했다고 믿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문서번호 「319-ABC File 1942~1948, No.387」과 케네디 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딘 러스크(Dean Rusk)의 냉전비망록 『내가 본 대로』(*As I saw it*)에 따르면 38선은 1945년 8월 10일 전쟁부 정책과장 본 스틸(Charles Bonesteel)과 함께 일본이 항복의사를 표명한 당일 자정 무렵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42년판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반도 지도에 긴급히 그은 군사적 저지선(沮止線)이었다. 소련도 미국의 의견을 인정하고 38선에서 진군을 멈췄다.

36년간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에게 38선은 운명의 선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그은 선이라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실제적인 고정선(固定線)이었다.

한반도의 38선 분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 짓기 위한 카이로와 얄타, 포츠담 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1943년 11월 23일, 카이로회담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 독립”이 약속됐고, 이후 이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일본군의 무장해제(武裝解除)를 명분으로 남과 북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은 38선을 경계로 군정(軍政)을 실시했다. 8월 25일 민간인의 왕래가 차단되고 전화와 우체국, 철도운행도 금지됐다. 각 도청소재지를 우선 점령한 소련군은 8월 29일 북한 전역을 점령했다. 9월 6일 해주-서울 간의 전화가 단절된 것을 마지막으로 38선은 고정된 선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련군은 38선을 임의로 들락거렸다. 개성에는 미군이